

이사회

이상원

한국 경제의 현실에 대한
한국 기독교의 반응

신앙과 학문
1999 여름호

56

한국 경제 현실에 대한 한국 기독교의 반응

이상원

총신대 신학대학원 교수, 기독교윤리학

한국 경제 현실에
대한 기독교의 반응

57

이 글은 한국 근대 경제가 시작된 19세기 말엽부터 199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약 90년의 기간 동안에 한국의 기독교가 한국의 경제 현실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여 주었으며, 어떤 고민을 해왔는가를 약사(略史)의 관점에서 검토한 글로서, 현재 그리고 미래의 한국의 경제 현실에 대한 기독교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역사적 전거를 간략하게나마 점검해 보자는 데 목적이 있다.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이라는 말이 이미 시사하는 것처럼 지난 날을 검토하는 이유는 현재와 미래의 일은 과거에 그 뿌리가 닿아 있고, 과거의 뿌리를 주의 깊게 살필 때 비로소 현재와 미래의 일을 새롭게 해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인 『시장과 윤리: 한국경제와의 관련하여서 존 롤즈와 화란 개신교 사회 경제 사상에 있어서의 경제 정의론 비교연구』(Market and Ethics: A Comparative Study of the Theories of Economic Justice of John Rawls and Dutch Protestant Socio-Economic Thought in Relation to South Korean Economy)의 제1부, 제3장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1. 20세기초부터 8.15해방까지: 산업과 국토 개발에 대한 강조와 공산주의에 대한 경고¹⁾

1900년 무렵에 한국에서 활동했던 청교도적이고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미국 선교사들은 검약, 근면, 정직과 같은 덕목들을 경제생활에 필요한 덕목들로 권장했다. 이들은 산업혁명, 외국상업자본의 침투, 열강의 경제적 경쟁 등이 한국경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

식민지시대 동안 두 개의 주목할 만한 전국적인 기독교 경제운동과, 두 개의 중요한 기독교인의 경제선언문이 나타났다. 최초의 기독교 경제운동은 국채보상운동으로서 1907년에 시작되었다. 이 운동은 천주교인들이었던 서상돈과 김광제가 주도했지만 개신교인들의 지지도 받았다. 이 운동을 통해서 당시의 기독교인들이 한국경제가 일본 제국주의의 상업자본의 거대한 힘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음을 파악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다른 운동은 개신교 지도자인 조만식이 주도한 물산장려운동이었다. 이 운동의 목적은 한국 기독교 경제사상 최초의 경제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 기독교 경제선언에 나타나 있다. 이 선언은 한국인들로 하여금 국토개발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를 건설하도록 독려하는 유토피아적 비전을 제시했다.²⁾ 이 운동과 선언은 미래 경제개발을 위한 어떤 구체적이고 잘 정돈된 청사진을 제공하지는 않았으나 협동조합, 소비조합, 저축조합 등을 설립하고, 양계, 토지개량, 사회개발운동 등을 촉진시켰다.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본군국주의의 한국 사회 수탈은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심화되었다. 이같은 상황은 급진적인 사회주의 경제운동이

1) 이 장은 김용복, "한국기독교 경제사상사의 전개" 신학사상 1991년여름호, pp.404-19의 내용을 소개한 것이다.

2) "우리 조선반도는 천부의 토이요, 부원의 지이다. 반만년 장구한 세월이 간단없이 물자를 공급하고 사업을 부여하여 종족이 번식하고 문화가 계발되었다. 생장력 많은 지미는 농업을 가히 써 흥케 하고 무진장의 광물을 포함한 지질은 공업을 가히 써 장케 하며 사통오달한 위치는 상업을 가히 써 성케 하고 기후와 풍토는 원예와 임업, 목축업에 적절하며, 하해와 항만은 어업과 운수에 절호하여 식산함이 가이 축적하고 흥업함에 가이 치부하겠으니 연 삼천리 근역은 삼천만 민족의 보고이요 태창이라 하리라. 이니 낙원이요 에덴이라 하겠도다. 우리는 가이 고루저각에서 금의 욕식으로 행복과 안락의 생활을 형유함이 무의할 것 같다. 참말 그러하겠도다" (전계논문, p.408).

한국사회 안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오는 데 유리한 사회적 환경을 준비했다. 이와 같은 마르크스주의와 사회주의의 침투에 대한 한국 기독교의 반응은 기독교 청년회의 경제운동과 한국 기독교 사회신경으로 나타났다. 기독교 청년회의 지도자였던 이대우는 극단적인 자본주의와 극단적인 공산주의를 모두 반대하면서 협동조합의 결성을 통한 평등의 추구를 제안했다.³⁾ 기독교 사회신경은 경제운동을 위한 신학적 토대를 제공했다. 이 신경은 경제개혁운동을 포함한 사회개혁운동은 기독교 신학의 필연적인 결과지만, 마르크스주의와 공산주의 혁명운동은 기독교 신학에 반대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⁴⁾

3) 이대우는 청년지를 통하여 사회개혁의 목표와 방법을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사회개조의 목표. 1. 누구를 막론하고 억지로라도 놀고 먹지 않게 한다. 바울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가르쳤다. 2. 누구나 노동할 기회와 방법을 보장받아야 한다. 3. 노동임금은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하여 책정할 것이 아니라 공평의 원칙을 좇아 정할 것이다. 노동자의 대우는 의사나 교사, 그 밖의 정신 노동자의 대우와 같아야 할 것이니 마땅히 최고급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 4. 천연물산, 이룰테면 토지, 광산, 수력, 교통 등은 가급적 사유화를 피해야 한다. 5. 사회계급은 직분별로 나누되 그 인격으로서 기준을 삼고 배급주의는 절대로 타파하여야 한다. 6. 보통교육은 이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며 애의, 복무, 희생의 정신은 사랑과 회망으로 주지를 삼을 것이다. 사회개조의 방법. 1. 금일 유럽각국에서 실행하는 합작주의의 방법을 행하는 것은 천로가 되는 것이다. 합작(=협동)의 뜻은 글자 그대로 그 운동으로 말미암아 사람 사이에 쟁투와 질투가 없이 누구를 막론하고 공동협력케 하는 것이다. 1. 각 교회가 협동조합에 가입하여 교인이 되는 동시에 바로 협동조합원이 되는 것이니, 이룰테면 어느 시내에 한 협동조합이 있고, 그 시내에 갑, 을, 병, 정 네 교회가 있으면 이 네 교회는 마땅히 그 조합에 가입하며...2. 교회는 연합하여 이 운동의 주동자가 되어 이 조합이 없는 곳에는 새로이 설치케 할 것이니 비신자라도 이 회에 가입케 하는 것이 특색이다. 3. '청년회'와 협동조합은 상호 협력하여서 협동의 발전을 피할 것이다. 청년회는 완전한 교회도 아니요 전혀 사회도 아니요 다만 그 중간에 있어 교회와 협력하여 사회에 복음이 되는 것이니 그 성질과 운동이 어느 방면으로 보든지 협동조합 성격과 부합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년회가 있는 지방에서는 반드시 이 운동을 일으키어 행복을 피해야 한다'(전계논문, pp.410-11).

4) "우리는 하나님을 부모 인류를 형제로 신(信)하며, 기독교를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애와 정의와 평화가 사회의 기초적 이상으로 사(思)하는 동시에 일체의 유물교육, 계급투쟁, 혁명수단에 의한 사회개조와 반동적 탄압에 반대하고, 진(進)하여 기독교전도와 교육급 사회사업을 확장하여 기독교적의 은사를 받고 갱생된 인격자로 사회의 중견이 되어 사회조직 중에 기독교정신이 활약케 하고, 모든 재산은 신께로 받은 수탁물로 알아 신과 인을 위하여 공헌할 것으로 신(信)하는 자다. 이상에 기하여 우리는 하(下)와 여(如)히 주장한다.

1. 인류의 권리와 기회균등 2. 인종급 민족의 무차별대우 3. 혼인신성. 정조에 남녀동등책 4. 아동의 인격 존중 5. 여자교육급 지위개선 6. 공청폐지, 금주축진 7. 노동자교육. 노동시간 축소 8. 생산급 소비에 관한 협동조합의 장려 9. 용(備)인 피용(皮備)인 간에 협동조직기관의 설치 10. 소득세 급 상속세의 고율적 누진법 제정 11. 최저 임금, 소작법, 사회보험법제정 12. 일요일공휴법의 제정. 보전에 관한 입법 급 시설'(전계논문, 411).

2. 60-70년대: 경제문제에 대한 교회의 무관심과 민중신학

60년대와 70년대에 있었던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개발은 교회의 반응을 요구했다. 이 기간 동안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진영과 진보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진영의 분열은 적대적인 두 진영의 형성으로 공식화되었다. 한국 교회의 대다수를 포괄한 전국복음주의연합(National Association of Evangelicals, NAE)이 1961년에 결성되었고, 이에 대응하여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1970년에 한국교회협의회(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KNCC)를 결성하였다. NAE진영은 대체로 경제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 진영에서 경제문제에 관여하지 않는 신학적 근거로 정교

5) "공산주의 운동은 사회과학으로 경제기구의 실상을 검토하며 그 더 좋은 재건을 기도하는 점에 있어서 존경할 것이며 그것이 사회과학적 입장에서 객관적 사실을 드러낸 것인 한 우리는 그것을 수락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정신적, 사상적 방면에 있어서 유물론 무신론적 견해를 전체에 강요하려는 때 우리는 신앙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각개 인격의 존엄을 위하여 감연히 거부하여야 할 것을 각오하여야 한다"(전개논문, 412).

분리를 내세웠는데, 여기에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⁶⁾ 반면에 KNCC측은 경제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표현하였다. KNCC측의 관심은 주로 도시산업선교와 민중신학을 통하여 표현되었다.

원래 도시산업선교의 목적은 가난한 자를 복음화하려는 것이었으나 산업노동자들의 비참한 생활을 목격한 후 강조점이 가난한 자의 복음화에서 가난한 자의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동운동으로 전환되었다.

민중신학은 정치경제적으로 고통받는 민중의 현실에 대한 신학적 해석이었다. 민중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이 주축을 이룬 광범위하고 유동적인 사회계층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용어다. 민중이라는 단어에 민중신학자들이 부여하는 의미는 신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나긴 하지만, 모든 용례들에 공통된 의미는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이다.⁷⁾ 민중신학은 민중의 고통을 그리스도의 고통으로 신학적으로 해석한다.⁸⁾ 민중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해석되며,⁹⁾ 민중운동이 일어나는 장소와 이 운동을 위한 기관은 민중교회로 해석되며,¹⁰⁾ 억압하는 정치경제구조로부터 해방을 위하여 싸우는 민중의 운동은 성령의 운동으

6) 칼빈과 아브라함 카이퍼등을 통하여 제시되고 발전되었던 정교분리의 원칙은 정치와 경제는 인간의 삶의 법적이고 제도적인 차원을 주로 다루는 반면에 종교는 영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을 다룬다는 기본개념 위에 서 있다. 여기서 이 두 영역은 서로 그 역할에서 구분되지만 존재론적으로 분리되지는 않는다. 사회 내의 악을 제거하고 사회가 사람이 살만한 사회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정치와 경제의 영역은 법적이고 제도적인 차원에서 노력하고 종교는 영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노력하는데, 법적이고 제도적인 차원은 영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으로부터 법의 정신 또는 철학을 부여받게 된다. 여기서 정치와 경제는 종교의 활동을 법적이고 경제적으로 뒷받침해주게 되며, 종교가 타락했을 때는 법의 통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종교는 정치와 경제의 영역에 대하여 법적이고 경제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지만 정치와 경제의 모든 영역에 대하여 영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그 의미와 정신을 부여하기도 하고 그 영역들이 잘못된 방향을 갈 때는 견제하기도 하는 방법으로 간여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한 칼빈과 카이퍼의 생각을 알아 보려면 다음의 글을 참고하라. Hans Helmut E er, *Die Aktualität der Sozialethik Calvins* (칼빈의 사회윤리학의 현대적 조명적용), 권호덕역, 한국개혁신학 제5권 99년4월, 26-56; 아브라함 카이퍼, 박영남역, 칼빈주의 (서울: 세종문화사, 1971), pp.105-42.

7) NCC신학연구위원회편, 『민중과 한국신학』(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5), pp.15,24,238,245; 한국신학연구소편, 『한국민중론』(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8), pp.42,46,157-8,176,224,493; 안병무, 『민중신학 이야기』(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7), 25,33,238,286; 안병무, 『민중사건 속의 그리스도』(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9), p.238.

8) 안병무, 『민중신학 이야기』, pp.33,34,106,275.

9) 전게서, pp.99,106-8.

10) 전게서, pp.172-4.

로,¹¹⁾ 민중이 등장하여 불의한 현실에 항거하면서 정치, 경제개혁운동을 계속하는 것은 예수의 부활로 해석되었다.¹²⁾ 민중신학은 현대 한국사회의 자본주의적 경제체제의 구조악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인 신학적 반성이었다.¹³⁾ 그러나 대다수의 한국의 복음주의 교회들은 민중신학 논쟁의 급진적인 신학적 기초를 비판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처럼 대다수의 복음주의 교회들로부터 외면 당한 것이 도시산업선교와 민중신학의 사회적 관심과 활동이 한국교회 안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

3. 80년대: 정부의 편파적인 재벌지원과 생산수단 및 이익의 불균등한 배분

80년대에도 NAE 진영은 현대 한국사회의 경제문제에 대해서 계속하여 침묵을 지켜왔다. 대부분의 반응은 NCC 계열을 통하여 나왔으며, 이 계열의 신학적 입장을 대변하는 잡지인 『기독교 사상』을 통하여 표현되었다. 그러나 80년대와 90년대 초에 들어서면서 “경제정의 실천을 위한 시민연합”이 조직되었는데, 이 연합에는 평신도들과 목사들, 진보적 기독교인들과 보수적 기독교인들이 모두 망라되어 있었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사회의 경제상황을 증진시키기 위한 한국 기독교인들의 연합된 노력이 시작되었음을 뜻한다.

『기독교 사상』을 위시하여 몇 개의 잡지에 실린 글들은 몇 가지 주제 그룹으로 분류될 수 있다. 한국사회의 경제적 현실태를 분석하는 글들이 가장 많았고, 경제에 대한 성경적이고 신학적 이해를 다룬 글들이 뒤를 이었으며, 경제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글들도 있었다.

1) 한국사회의 경제현실을 분석한 글들은 두 가지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분배의 정의의와 한국경제의 종속의 문제가 그것이다.

분배의 정의의 현실태를 분석하고 있는 세 편의 논문의 내용을 검토해

11) 전계서, p.227; 『민중사건 속의 그리스도』, p.131.

12) 전계서, p.134; 『민중신학이야기』, p.336.

13) 『민중신학이야기』, pp.199-202.

보자. 최정표¹⁴⁾는 정부가 업종별로 전문화된 대기업의 성장 또는 개발을 촉진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대기업 지원 정책을 폈으나, 불행하게도 정부의 정책은 거대한 재벌의 형성을 돕는 결과만을 낳았을 따름이라 지적했다. 예컨대 1991년에 61개 재벌의 자산 및 매출총액은 한국경제의 총자산 및 총 매출 총액의 50% 이상을 점유했다. 재벌의 간접적인 지배 아래 있는 영역까지 고려한다면, 재벌의 지배는 60-70%를 상회한다. 그 결과 61명의 재벌 총수와 이들의 친속들이 과점적으로 한국경제 전체를 지배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것은 경제독재 또는 경제적 패권주의였다.

박영호¹⁵⁾도 한국경제구조가 소수의 독과점 재벌기업을 편중 지원했음을 지적했다. 그는 자신의 논증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수치들을 제시했다. 1. 대기업은 국민경제보다 세 배나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1987-1989). 2. 30대 재벌기업의 매출총액은 GNP의 94.8%를 점유했다(1988년). 3. 수출입 은행의 융자금 가운데 80.3%가 3대 재벌인 현대, 대우, 삼성에게 주어졌다. 이와같은 통계숫자들은 한국사회의 분배의 원리가 업적을 근거로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공동생활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정글의 법칙과 '빈익빈 부익부'의 규칙에 따라서 이루어졌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오영수¹⁶⁾는 간접세에 무겁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조세제도는 분배의 정의의 실현을 방해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예컨대 소득세의 경우에 1. 근로소득이 42.7%,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는 18.66%를 차지했다(1989년). 2. 급여소득은 100% 원천징수되는 반면, 사업소득세는 신고된 소득에 대해서만 부과되기 때문에 회피가 가능했다. 3. 근로소득이 100% 원천징수되는 것과는 달리 상속, 증여, 양도 등에서 발생하는 자산소득세는 20-30%만이 징수되었다. 1988년에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0.3%에 불과했다.

2) 여섯 편의 글이 한국경제의 종속성을 다루었다. 논증의 핵심은 한국 경제체제는 1945년 제국주의 일본으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본과 미국의 경제적 제국주의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

14) "재벌의 경제력 집중", 『복음과 상황』 91년 78월호, pp.154-57.

15) "불공평한 경제정책과 위기적 분배구조" 『기독교 사상』, 89년12월호, 72-80.

16) "한국 조세제도의 성격과 분배 문제," 『기독교 사상』, 90년5월, 55-65.

는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경제적으로는 일본의 경제적 제국주의에 의존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는 미국의 정치적 제국주의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¹⁷⁾

이 글들의 배후에는 한국사회의 성격을 둘러싸고 전개되었던 한국사회 구성체 논쟁이 자리잡고 있다. 이 논쟁은 주류 경제학자들과 비주류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진행되었다. 한편에서는 종속이론의 입장에서 있는 비주류 경제학자들이 한국경제가 제국주의적인 미국과 일본의 독점자본에 철저히 종속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종속이론가들, 특히 운동권을 중심으로 한국의 경제 및 정치구조의 대미 및 대일본 의존도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두 가지 해석이 제시되었다.¹⁸⁾ 1) 식민지 반봉건사회론(이하 식반론)은 한국사회는 국제적으로는 일본과 미국의 정치경제적 식민지이며, 국내적으로는 봉건사회라는 이론이다. 식반론은 일제 36년 기간 동안의 한국사회의 특징을 그대로 수정 없이 현대 한국사회에 적용했다. 식반론은 남한의 독립정부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남한 정부는 어떤 독립된 정치력이나 경제력도 지니지 못한 꼭두각시 정부라고 주장한다. 남한경제는 일본과 미국의 제국주의적 자본의 직접적인 지배하에 놓여 있다. 그러나 식반론은 2) 신식민지 국가독점 자본주의론(이하 신국자론)의 비판을 받았다. 신국자론

17) 양혁승, "우루과이 라운드의 본질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기독교 사상』, 92년3월, 68-75; 박진도, "농축산물 수입개방과 농어촌의 위기" 『기독교 사상』, 90년5월, 66-76; 김병태, "농촌 경제개혁의 가능성과 교회의 역할," 『기독교 사상』, 87년11월, 54-63; 정건화, "한국의 경제구조와 분배문제," 『기독교 사상』, 90년5월, 44-54; 박현재, "한국경제의 현실과 전망," 『기독교 사상』, 87년8월, 33-41; 박영호, "한국경제의 고민," 『기독교 사상』, 89년4월, 50-59.

18) 이 문제를 다룬 문헌으로는 다음을 참고하라. 이진경, "식민지반봉건사회론과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론" 『대학신문』, 1989년3월6일자; 이병천, "발전도상국 사회구성체론의 현대계와 신식 국독자론" 『대학신문』, 1989년3월13일자; 신현준, "한국사회 토대분석과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론" 『대학신문』, 1989년3월20일자; 이창휘, "한국사회에서의 반제반독점민주변혁론" 『대학신문』, 1989년4월3일자; 서관모, "반제반독점 민주변혁에서의 세력배치" 『대학신문』, 1989년4월10일자; 안병직, "한국사회구성체 논쟁에 부쳐 - 시리즈를 보고나서" 『대학신문』, 1989년 4월10일; 김진균, 조희연 편, 『한국사회론: 현대한국사회의 구조와 역사적 변동』(서울: 한울, 1992); 박현재, 『한국경제구조론』(서울: 일월서각, 1986); 이진경, "일반적 위기와 국가독점자본주의에 관한 논쟁" 『현실과 과학 2』(서울: 새길, 1988): 74-139; 서관모, "식민지반봉건사회론과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론의 계급분석" 전계서: pp.181-202; 윤소영, "식민지반봉건사회론과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론" 전계서: pp.140-79; 이성형, "신식민지파시즘의 이론구조" 전계서: pp.202-24.

은 제국주의적 일본과 미국의 지배는 국내외의 독점자본과 결탁한 파시스트 정부에 의해 수행된다고 주장함으로써 남한정부의 존재를 인정했다. 신국자론은 남한정부의 존재를 부인하고 남한사회를 봉건적이라고 분석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신국자론 또한 현대의 일본과 미국은 제국주의 국가들이며, 한국은 두 제국주의 국가들의 간접적 지배 아래 있다는 점을 확고하게 주장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주류 경제학자들이 국제분업질서에 좀더 깊이 편입되어 가는 것으로 한국경제의 현실태를 해석했다.¹⁹⁾ 주류경제학자들이 근거로 제시한 이유들은 다음과 같다. 1) 1962년에 해외저축은 남한 총저축의 83.5%를 차지한 반면,²⁰⁾ 해외저축률은 점차 감소하여 1986년에는 해외저축이 없어졌다.²¹⁾ 2) 한국의 대다수의 해외자본은 차관이기 때문에 한국에 차관을 제공한 외국은 차관의 이자만을 얻을 수 있고, 국내자본이 생산과정에서 대하여 책임을 진다.²²⁾ 3) 해외자본이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도 투자율은 꾸준히 감소되었다.²³⁾ 4) 정부는 국내자본의 성장을 방해하는 외국자본의 유입을 억제했으나, 국내자본의 성장을 돕는 외국자본의 유입에 대해서는 특혜를 주었다.²⁴⁾

한국 경제 현실에
대한 기독교의 반응

3)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 경제 이해를 보여 주고자 노력한 글들 가운데 네 편이 분배의 정의를 다루고 있고, 세 편이 자본주의에 대한 해석을, 그리고 한 편이 WCC의 경제선언의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하고 있다.

분배의 정의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을 소개하고자 한 네 편의 글들 가운데 두 편은 가난한 자의 의미에 대한 저자들의 해석을 소개하고 있다. 민영진은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다윗과 우리아의 이야기(사무엘하11,12장)를 해석했다.²⁵⁾ 부자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야 할 빵을 착취하는 독점

19) 변형윤, "경제개발계획," 『한국경제론』(서울: 유봉출판사, 1993), p.136.

20) 김용복, "전자산업의 자본축적과정과 외국인투자" 『한국자본주의 분석』, 양우진, 홍장표 외 편 (서울: 일빛, 1991), p.126.

21) 변형윤, 전계의 글, p.159.

22) 김용복, 전계의 글, p.127.

23) 전계의 글, p.132-3.

24) 전계의 글, p.145.

25) "구약성서에 나타난 부자들에게 대한 경고," 『기독교 사상』, 90년5월, 34-43.

가들인 반면에, 착취당하는 가난한 자는 절대적 프롤레타리아로 이해되었다. 진연섭²⁶⁾은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포토코스의 의미에 의존하면서 가난한 자를 최소한의 생계비조차 벌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근근히 생계를 꾸려 가는 사람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가난한 자가 겪는 빈곤은 구조적 착취, 곧, 권력을 장악한 자의 억압과 착취의 결과다. 그는 가난을 개인적인 게으름의 결과로 보지 않고 사회구조의 문제로 보았다.

분배의 정의를 다룬 글들 가운데 또 다른 두 편은 분배의 정의에 대한 기독교적인 의미를 보여주려고 노력했다. 맹용길²⁷⁾은 마태복음20:1-6에 있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설명하는 가운데 분배의 정의는 “각자에게 자기 몫을”이라는 원리를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배의 정의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권위를 지니고 있다는 원리에 근거해야 한다. 이 논증이 함의하는 바는 분배의 정의의 원리는 바른 인간관 위에 근거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득중²⁸⁾은 분배의 정의의 모범적인 사례를 사도행전2:44-46; 4:34-35; 6:1-7로부터 찾기 위하여 노력했다. 그에 따르면 분배의 정의는 개인적 희생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의 문제이기도 하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공동체와 사회를 위하여 자기 소유물을 포기해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사도행전2:44-46; 4:34-35). 동시에 이처럼 나누는 생활은 사회적 제도화를 통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자본주의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를 다루는 세 편의 글들은 자본주의를 비평하는 데 집중되었다. 논증의 핵심은 자본주의란 미래의 한국사회를 위한 유일한 경제체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자본주의를 발전시킴으로써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성경적인데, 그 이유는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일종의 경제적 기술체계, 곧, 효율성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세력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는 자본주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상을 찾을 수가 없다.²⁹⁾

노정선은 우리가 공산주의 사회에 대한 해석학적인 오해와 편견으로

26) “신약성서에 나타난 가난한 자,” 『기독교 사상』, 90년5월, 24-33.

27) “분배의 정의에 따른 기독교 윤리적 조명,” 『기독교 사상』, 86년9월, 22-32.

28) “초기 기독교 공동체와 분배정의의 구현,” 『기독교 사상』, 90년5월, 13-32.

29) 박영호 외, “한국경제를 논한다,” 『기독교 사상』, 87년11월, 25-27.

부터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³⁰⁾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가장 가난한 자는 매년 360달러를 벌어들인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주택, 교육, 땅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국에서 절대적으로 가난한 자는 일년에 11,000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벌어들이는 사람이다. 주택도, 고등교육도, 땅도 무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이 경우에 미국사회가 중국사회보다 더 풍요로운 사회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

채수일³¹⁾은 신학의 과제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형이상학과 신학적 이상화를 비판하고 비신화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표명했다.

자유 시장 경제는 자본주의의 고유한 운동법칙이라고 하겠다. 시장은 자유로워야 하고, 시장이 자유로운 만큼 인간도 자유롭다는 것이 시장 경제 체제의 신앙 고백이다. 그러나 시장 경제는 가난한 사람을 주변화 시키고, 그들의 기본적인 욕구인 식량, 건강, 주택, 교육, 고용, 사회 보장 제도 등으로부터 소외시킬 뿐 아니라,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 시장의 자유는 가난한 사람의 자유가 아니다. 시장의 자유는 상품과 기업의 자유, 사유 재산의 자유만을 의미할 뿐이다. 시장 경제의 더 큰 문제는 시장 경제의 통제권을 장악한 이들이 지속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시장 경제로 국민 총생산이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은 늘어나는 데서 확인된다. 결국 시장은 침략적 지배가 구조화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 경제의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폭로하고 비신화화하는 일이 현재와 미래의 신학적 성찰의 중심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³²⁾

한편 이주연의 글³³⁾은 WCC 선언문을 요약한 것으로서 특별히 분배의 정의에 관한 부분과 자본주의 비판이 주목할 만하다. 1) 분배의 정의에 관

30) "신세계 경제질서와 한국교회의 과제," 『기독교 사상』, 93년7월, 47-55.

31) "미래의 자본주의와 신학의 미래," 『기독교 사상』, 93년7월, 27-34.

32) 전개의 글, p.34.

33) "신앙 과제로서의 경제 I," 『기독교 사상』, 92년5월, 151-71; "신앙 과제로서의 경제 II," 『기독교 사상』, 92년6월, 157-75.

하여, 경제정의의 실천은 제도적 정의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바꾸어 말해서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해주는 임금을 벌어들이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들, 예컨대, 어린이들, 노인들, 장애자들, 한시적인 실업자들을 위하여 사회보장제도가 요청된다. 그러나 재분배는 차선의 정책일 뿐이다. 생산과정에 대한 동등한 참여에 우선 순위가 두어져야 한다. 2) 자본주의비판에 대하여, 시장은 더 이상 인격적 존재들이 만나는 회합장소가 아니다. 시장은 익명의 사람들을 위한 장소가 되었다. 모든 재화와 용역은 사고 팔 수 있는 물품들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시장은 어떤 외부간섭도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움직인다. 시장은 다만 자유시장의 원리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말의 의미는 시장은 독재화되고, 물신화되고, 우상화되었다는 뜻이다. 기독교 신앙에 근거한 경제학의 주요과제는 자본주의가 지닌 우상숭배적 성격을 폭로하고, 시장, 자본주의, 사회주의, 경제성장의 우상화에 대하여 경고를 발하는 것이다. 1. 시장의 교환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들은 경제활동의 영역 전반에 걸쳐서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자유시장경제의 기본 전제는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2. 시장은 돈을 가진 자의 요구는 인정해 주고 돈을 가지지 않은 자의 요구는 무시해 버린다. 3. 시장의 가치판단은 상품과 용역의 가치로는 계산할 수 없는 가치를 무시한다. 4. 불평등한 무역 당사자들 사이의 자유로운 무역은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5. 자유시장은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6. 보호주의는 계속해서 자유시장의 범위를 축소시킨다.

4) 1992년에 실시한 앙케트³⁴⁾는 한국 기독교인들이 부의 불평등한 분배의 문제가 한국경제에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 가운데 37.1%가 대기업의 독점이, 그리고 19.7%가 소득의 불평등한 분배가 한국경제의 미래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들 가운데 83.5%가 경제성장의 혜택이 고용주들에게 돌아간다고 응답한 반면, 71.8%는 노동자들이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49.6%는 파업의 책임이 고용주들에게 있다고 응답했다.

한편 이같은 불평등한 분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들이

34) 이원규, "도시교회 교인들의 경제 의식," 『기독교 사상』, 92년10월, 208-19.

나오기도 했다. 1. 고재식³⁵⁾은 종속이론에 근거하여 교회는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은 한국경제체제의 대일본 및 미국에 대한 종속을 심화시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거부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교회는 일본 및 미국의 제국주의적 지배로부터 자유로운 민중경제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회는 소외된 자들의 편에 서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2. 손규태³⁶⁾는 개인 윤리적 차원의 소비자들의 철저한 현대적 금욕주의와 함께 책임윤리 차원의 안전장치로서 사회적 네트워크를 법적 제도적으로 구성하는 방법을 동시에 강조하는 방법을 통해서 불평등한 분배의 문제를 극복할 것을 제안했다. 3. 필자가 판단하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제안은 경실련 사무총장인 서경석으로부터 나왔다.³⁷⁾ 그의 진단에 따르면,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증가되면 사회가 자동적으로 더 나은 사회로 변화된다고 더 이상 믿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한국의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전 국민의 25%나 점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의 도덕적 상황은 개선되기는커녕 더욱 악화일로를 걸어왔음을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 윤리적 결단만으로는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개인들의 영적인 힘은 “조직화된 영적인 힘”으로 나타나야만 한다. 경제의 영역에서 이 영적인 힘은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구조변혁운동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4. 결론

지금까지 필자는 1900년대부터 199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한국의 경제현실에 대하여 반응해온 궤적을 역사적으로 살펴 보았다. 이 궤적을 간략히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 해방 전 한국의 개신교는 산업과 전국적인 국토개발을 강조하면서 공산주의의 위협에 대한 경계를

35) “경제민주화를 위한 기독교 윤리,” 『기독교 사상』, 87년11월, 42-52.

36) “새로운 경제윤리의 모색,” 『기독교 사상』, 92년1월, 15-27.

37) “선한 의지 모아 분배정의 실현하자,” 『목회와 신학』, 90년11월, 26-31; “토지공개념과 기독교운동,” 『기독교 사상』, 90년5월, 77-85.

게올리 하지 않았다. 60년대와 70년대에 들어와서 NAE 진영이 경제문제에 무관심했던 반면에, NCC 계열은 도시산업선교와 민중신학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착취당한 노동자들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다. 80년대에 들어와서 교회의 관심은 세 가지 문제에 집중되었는데, 생산수단과 자원 및 생산이익의 불평등한 배분의 문제, 이 같은 불평등을 초래한 원인으로서 정부의 편중된 재벌 지원, 그리고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 그것들이다. 특별히 이 세 가지 문제- 분배의 정의의 문제, 재벌의 문제, 자본주의의 비인간성을 극복하는 문제 - 는 오늘날의 한국경제의 틀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로서 현재의 한국사회가 해결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쏟고 있는 문제들인 동시에 현재와 미래의 한국 경제가 계속해서 대결하고 대응해야 할 문제들이다.

이상과 같은 한국 경제에 대한 기독교계 반응의 역사적 궤적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주목할 만한 한 가지 특징은, 일제시대의 기독교가 곤궁한 현실 속에 처해 있었던 한국의 경제를 회생시키고자 하는 범국민적인 노력에 거교회적으로, 그리고 비교적 적극적인 태도로 참여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해방 이후에는 다만 신학적으로 자유주의적이고 급진적인 입장에서 있는 소수의 신학자들과 기독교인들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무관심한 태도로 침묵을 지켜왔다는 사실이다. 왜 대다수의 교회가 경제현실에 대하여 침묵을 지켜 왔는지, 그리고 일부의 자유주의적이고 급진적인 진영의 경제현실에 대한 관심이 왜 대다수의 교회와 기독교인들로부터 외면당해야 했는가에 대해서는 더욱 깊은 반성과 연구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다만 본 논문이 시사하는 범위 안에서 짚어볼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로는 NAE 진영과 NCC 진영이 모두 사회적 실천을 위하여 내세운 신학적 토대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곧, NAE 진영에서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해석할 때 정치와 종교가 긴밀한 상관성 속에서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면서 서로의 역할을 분담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지 않고 두 영역이 존재론적으로 분리되는 것으로 오해했던 것이 한국의 대다수의 교회들이 경제현실에 대하여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해 왔던 신학적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NCC 진영의 사회적 실천은 민중의 인간학적 현실태를 하나님의 행동과 존재론적으로 동일시하는 범신론적인 해석을 실천의 신학적 근거로 제시함

으로써 건설하지 못한 신학적 토대 위에 사회적 실천을 세우고자 했다. 신학적 토대가 건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진영은 그 진지한 관심과 노고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복음적인 성향을 지향하는 교회들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었다. 바른 사회적 실천은 바르고 건설한 신학적 토대 위에 서야 한다. 신학적 토대가 건설하지 못하면 사회적 실천도 그 동기의 숭고함과는 상관 없이 뒤틀려지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유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 고재식, “경제민주화를 위한 기독교 윤리,” 『기독교 사상』 1987년11월: pp.42-52.
- 김득중, “초기 기독교공동체와 분배정의의 구현,” 『기독교 사상』 1990년5월: pp.13-32.
- 김병태, “농촌 경제개혁의 가능성과 교회의 역할,” 『기독교 사상』 1987년11월: pp.54-63.
- 김용복, “전자산업의 자본축적과정과 외국인투자,” 『한국자본주의 분석』 양우진, 홍장표 외 편. 서울: 일빛, 1991: p.126.
- , “한국기독교 경제사상사의 전개,” 『신학사상』 1991년여름호: pp.404-19.
- 노정선, “신세계 경제질서와 한국교회의 과제,” 『기독교사상』 1993년7월: pp.47-55.
- 맹용길, “분배의 정의에 따른 기독교윤리적 조명,” 『기독교 사상』 1986년9월: pp.22-32.
- 민영진, “구약성서에 나타난 부자들에게 대한 경고,” 『기독교 사상』 1990년5월: pp.34-43.
- 박영호, “불공평한 경제정책과 위기적 분배구조,” 『기독교 사상』 1989년12월호: pp.72-80.
- , “한국경제의 고민,” 『기독교 사상』 1989년4월: pp.50-59.
- 박영호 외, “한국경제를 논한다,” 『기독교 사상』 1987년11월: pp.15-28.
- 박진도, “농축산물 수입개방과 농어촌의 위기,” 『기독교 사상』 1990년5월: pp.66-76.
- 박현재, “한국경제의 현실과 전망,” 『기독교 사상』 1987년8월: pp.33-41.
- 변형운, “경제개발계획,” 『한국경제론』, (서울: 유풍출판사), 1993: pp.106-76.
- 서경석, “선한 의지 모아 분배정의 실현하자,” 『목회와 신학』 1990년11월: pp.26-31.
- , “토지공개념과 기독교운동,” 『기독교 사상』 1990년5월: pp.77-85.
- 손규태, “새로운 경제윤리의 모색,” 『기독교 사상』 1992년1월: pp.15-27.
- 아브라함 카이퍼, 『칼빈주의』, 박영남 역, (서울: 세종문화사), 1971, pp.105-42.
- 안병무, 『민중사건 속의 그리스도』,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9.
- , 『민중신학 이야기』,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7.
- 양혁승, “우루과이 라운드의 본질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기독교 사상』 1992년3월:

pp.68-75.

NCC신학연구위원회 편. 『민중과 한국신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5.

오영수. "한국 조세제도의 성격과 분배 문제." 『기독교 사상』, 1990년5월: pp.55-65.

이원규. "도시교회 교인들의 경제 의식." 『기독교 사상』, 1992년10월: pp.208-19.

이주연. "신앙 과제로서의 경제 I." 『기독교 사상』, 1992년5월: pp.151-71.

—. "신앙 과제로서의 경제 II." 『기독교 사상』, 1992년6월: pp.157-75.

정건화. "한국의 경제구조와 분배문제." 『기독교 사상』 1990년5월: pp.44-54.

진연섭. "신약성서에 나타난 가난한 자." 『기독교 사상』 1990년5월: pp.24-33.

채수일. "미래의 자본주의와 신학의 미래." 『기독교 사상』 1993년7월: pp.27-34.

최정표. "재벌의 경제력 집중." 『복음과 상황』 1991년78월호: pp.154-57.

한국신학연구소 편. 『한국민중론』,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8.

E er, Hans Helmut, 권호덕 역. *Die Aktualität der Sozialethik Calvins*

(칼빈의 사회윤리학의 현대적 조명적용), 『한국개혁신학』 제5권 99년4월: pp.26-56.